

<지리산국립공원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 지리산국립공원 맹세이골 숲 학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 일정표 >

시기	강좌	시간	주요 내용	장소
3월	입학식 / 친구들아 안녕?	2	(1) 맹세이골 숲 학교 입학식 - 서로 인사나누기, 국립공원 알아보기 (2) 나를 소개할게! - 지리산 맹세이골 숲 학교 참여 기관 및 친구들 소개 (3) 영상으로 만나는 2020년 맹세이골 숲 학교	사무소
4월	나는야 어린이 소방대	2	(1) 맹세이골과 인사나누기 - 맹세이골의 자연과 인사하고, 몸 풀기 튼튼 체조하기 (2) 봄 나무 되어보기 - 봄철에 많이 일어나는 산불발생시 나무 되어보기 (3) 소방관 아저씨랑 함께하는 산불진화	맹세이골 자연관찰 로
5월	꿈틀 꿈틀 봄 숲 파헤치기	2	(1) 맹세이골과 인사나누기 - 맹세이골의 자연과 인사하고, 몸 풀기 튼튼 체조하기 (2) 꿈틀, 꿈틀 봄 숲 파헤치기 - 곤충들의 애벌레를 알아보고 한 해 살이 이해하기 (3) 맹세이골의 봄 친구 야생화 찾아보기	맹세이골 자연관찰 로
6월	미션!! 계곡 길 보물찾기	2	(1) 대원사 계곡과 인사 나누기 - 자연과 인사하고, 몸 풀기 튼튼 체조하기 (2) 미션! 계곡 길 보물찾기! - 계곡 길에 숨겨진 보물찾기	대원사계 곡길
7월	숲 학교의 특별한 나들이	4	(1) 푸른 바다에서 만나는 바다유치원 - 달랑게를 찾아라! - 해양쓰레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게임으로 풀어요) (2) 푸른 초원을 달려라 (양떼목장 체험)	한려해상 국립공원
9월	숲 속 탐험대	2	(1) 맹세이골과 인사나누기 - 맹세이골의 자연과 인사하고, 몸 풀기 튼튼 체조하기 (2) 숲 속 탐험대 - 9월에 관찰되는 관찰로의 특징 찾기(버섯, 곤충) - 나무들의 다양한 모습 찾기 (수피, 나뭇잎, 꽃, 열매) (3) 맹세이골의 야생화 이야기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악기로 숲에서 연주하기	맹세이골 자연관찰 로
10월	숲 속 패션쇼!!	2	(1) 맹세이골과 인사나누기 - 맹세이골의 자연과 인사하고, 몸 풀기 튼튼 체조하기 (2) 숲 속 패션쇼!! - 폐 현수막과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3) 자유놀이	맹세이골 자연관찰 로
11월	졸업식	2	(1) 맹세이골과 작별인사 나누기 맹세이골에서의 2020년 되돌아보기 (2) 졸업식(졸업장 수여)	사무소

# 지리산국립공원 맹세이골 숲학교

활동장소 | 맹세이골자연관찰로  
 소요시간 | 90분  
 참가대상 | 유치원생, 초등학생  
 참가인원 | 20명/해설사1명  
 작성자 | 자연환경해설사

- 활동목표**
  - 본래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왔음을 체험을 통해 알려주면서 자연과 우리는 하나임을 알려주고 자연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우쳐줌
- 준비물**
  - 집터, 숲 가마터, 주막터, 옛날 화장실, 옛날 집, 그 외에 관찰로 식물이야기
- 유의사항**
  - 주변의 나뭇가지를 함부로 꺾지 않도록 유의하자.
  - 자연에서 자유롭게 관찰 있도록 과도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개 및 인사나누기</li> <li>-국립공원의 중요성, 지리산 국립공원 소개</li> </ul>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및 맹세이골 소개</li> <li>• 유용하게 쓰인 나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싸리비를 만들었던 싸리나무</li> <li>- 조릿대로 쓰였던 산죽</li> </ul> </li> <li>• 마을주민이 살았던 집터</li> <li>•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모습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신료로 쓰인 생강나무</li> <li>- 기름때를 없앤 때죽나무</li> <li>- 산골마을의 먹거리(덩굴식물)</li> </ul> </li> <li>• 맹세이골 사람들의 생계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을 모으는 장소였던 주막터</li> <li>- 숲을 구웠던 숲 가마터와 숲 굽는 과정</li> </ul> </li> <li>• 굴참나무의 희생</li> <li>• 맹세이골의 화장실구조</li> <li>• 마을의 수호신 당산나무</li> <li>• 옛 선조들의 지혜</li> <li>• 맹세이골 황토집</li> <li>• 황토집 앞마당의 과일나무들</li> <li>• 산골마을 주민 체험</li> </ul>	8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으로 다시 보는 맹세이골</li> <li>• 느낌나누기, 마무리 인사</li> </ul>	30분

**시나리오** | 인사 및 국립공원의 중요성, 지리산 국립공원 소개

▣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맑고 화창한 날 경치 좋고 아름다운 지리산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자연환경해설사 ○○ ○입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신 이곳은 어디일까요?(참가자 대답)

▣ 네.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몇 개일까요?(참가자 대답)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어디일까요?(참가자 대답) 네~! 지리산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을 포함한 산악형 국립공원 17개, 다도해와 같은 해상-해안형 국립공원 4개, 경주와 같은 역사문화형 국립공원이 1개 있습니다. 국립공원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소중한 문화자원, 반달가슴곰과 같은 희귀한 동물 등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에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산악형 국립공원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리산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가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여 지리산으로 부르며, 백두산의 맥이 뿔어 내렸다 하여 ‘두류산’, ‘봉래산(금강산)’, ‘영주산(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로 ‘방장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 프로그램 및 맹세이골 소개

▣ 그렇다면 여러분은 맹세이골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러기보다 먼저 이곳까지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깊은 산골짜기 굽이, 굽이, 굽은 길에 어디선가 슬금슬금 호랑이가 나타날 것 같지 않던가요?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얼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진짜 사람이 살긴 살았을까요?

▣ 이렇게 깊은 골짜기 맹세이골에도 사람은 살았고 한때는 번성한 마을이었답니다. 물론 지금은 사람이 떠나버리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지리산에 호랑이는 살고 있을까요? 맹세이골에는 옛날 호랑이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으로 ‘맹수(猛獸)가 사는 골짜기’라는 의미로 ‘맹수골’에서 ‘맹수이골’하다가 ‘맹세이골’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옛날 이 지역에 소와 말을 많이 키워서 아래 골짜기는 ‘소막골’, 그리고 여기는 ‘망세이골’로 불리었는데 ‘맹세이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 그럼, 지금부터 맹세이골에서 살았던 옛날 산골마을 사람들의 흔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중에 모든 해설이 끝나고 나면 게임이 있으니 열심히 해설에 귀 기울여 주세요!

### 유용하게 쓰인 나무들

▣ 첫 번째 흔적입니다. 이 나무는 ‘싸리나무’입니다. 혹시 옛날에 나무를 엮어서 만든 빗자루를 이용해 마당을 쓸던 모습을 본적이 있나요? 지금은 그 빗자루를 찾기가 어렵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나무가 싸리나무입니다. 그리고 옛날 대문도 이 싸리나무의 줄기를 이용해서 문짝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 외에도 싸리나무의 가지를 이용해

소쿠리나 채반, 키 등을 만들어서 썼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아주 유용한 나무였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부모님께 회초리로 맞아본 사람 있나요? 네. 역시 다들 착하고 부모님 말을 잘 들어서 회초리로 맞아본 적은 없나봅니다.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지.....

옛날에는 이 싸리나무를 회초리로도 만들어서 많이 썼다고 합니다. 맹세이골 주변에는 어떤 종류의 싸리나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곳에는 광대싸리와 조륙싸리, 참싸리가 있습니다.

▣ 맹세이골을 오르다 보면 왼편에 키 작은 대나무가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작은 나무를 옛날 산골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하였을까요?

▣ 그 전에 여러분, 대나무는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대나무는 나무인지 풀인지 논란이 많은 식물입니다. 오래 살고 단단한 목질부가 있어 나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관다발형성층이 없어 부피생장을 하지 못하고 속이 비어 있으니 풀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풀과 나무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 대나무류로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식물학적으로는 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그렇다면 이 키작은 대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산죽'입니다. 산죽은 산에 나는 대나무라는 의미에서 '산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 쌀 씻을 때 돌을 걸러내는 조리를 알고 있나요? 그 조리를 이 산죽을 이용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산죽을 '조릿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 산죽의 열매는 옛날에 흉년이 들면 배고픔을 달래려고 먹기도 하였답니다. 참으로 우리 생활에서는 이로운 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그렇다면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와 우리 민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맹세이골 주변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대원사에서 소나무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잘 보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소나무의 송진으로 불을 밝혀 책을 읽고, 바느질을 하였으며,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걸어 나쁜 기운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옛날 맹세이골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소나무와 함께 생활했는지 상상하면서 다음 흔적을 찾아 떠나보도록 해요.

▣ 우와, 이 쌓아놓은 돌을 보세요. 과연 이곳은 무슨 용도로 쓰인 곳일까요? 이곳은 옛날 산골 마을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입니다. 여기 보이는 돌 위에 흙을 얹어서 집을 만들었다고 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집과는 많이 다르게 생겼지요? 그리고 1960년대 초 이후로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에는 대원사가 있습니다. 대원사에 가기위해서는 대원사계곡 위의 다리를 건너야했습니다. 그런데 비나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다리를 건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사 스님들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 때까지 이 집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모습들

▣ 여기, 나뭇잎을 보세요. 나뭇잎이 꼭 포크모양을 닮았지요? 그리고 하트모양도 있고요. 그럼 이 나뭇잎을 문질러서 냄새를 맡아 보세요. 어떤 냄새

가 나나요?(참가자 대답) 네. 생강냄새가 나지요? 이 나무는 그래서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옛날에 생강이 귀하던 시절에는 생강냄새가 나던 이 나무의 나뭇잎을 말려 가루를 내어서 생강대신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잎은 말려 달여서 차로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산골에서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동백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 생강나무의 열매에서 기름을 짜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동백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 이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까맣죠? 손으로 나무를 문질러보세요. 어때요? 꼭 때가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나무를 '때죽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때죽나무는 열매를 찧어서 물에 풀면 물고기들이 때죽음을 당한다 해서 때죽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때죽나무의 열매 껍질로 독화살을 만들기도 하고, 기름때를 없애준다고 해서 비누로도 쓰이기도 했답니다.

▣ 이렇듯 옛날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 맹세이골 사람들의 생계수단

▣ 이곳을 보세요. 여기의 나무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나무들과는 다르게 생겼지요? 다른 나무에 기대거나 얽혀 있는 이 식물들은 덩굴식물입니다. 여기에 덩굴식물이 많은 이유는 옛날에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에 덩굴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튼튼한 줄기는 바구니를 비롯해 각종 생활도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덩굴식물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다래, 머루, 칩, 마, 더덕 등 유용한 덩굴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 이곳은 어디일까요?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터만 남아 있지요? 여기는 옛날에 '주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산골마을의 사람들은 주로 숲을 구워 팔아 생계를 유지 했는데 이곳이 생산된 숲을 모으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 그리고 숲을 모아서 이동할 때 마차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마차가 들어올 정도로 원래는 이곳이 큰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잘 보세요. 옛날 이곳까지 마차가 들어올 정도로 넓은 도로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놀랍지 않나요?

▣ 여길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도 아까 옛날 집터처럼 돌이 쌓여져 있죠? 이곳도 집이었을까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주막을 설명하면서 이곳 산골사람들의 주요 생계수단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참가자 대답) 네. 바로 숲이었죠. 바로 이곳은 숲을 굶던 '숲 가마터'입니다.

▣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 맹세이골에서는 약 20여 가구가 숲을 굶고 소규모 경작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 숲을 굶는 것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마을 주변을 농토로 개간하여 고구마, 감자, 콩 등을 심거나, 산나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속 생활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한 집, 두 집 맹세이골을 떠나기 시작하였고 1962년 김남구씨를 마지막으로 모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큰 나무가 없이 고른 기름진 땅이었는데 마을사람들이 떠난 40여 년

동안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 자연으로 되돌아가 맑은 계곡 소리 가득하고 울창한 나무가 많은 숲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옛날 산골마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그럼 옛날에 숯을 어떻게 구웠는지 알아보을까요? 숯을 굽는 과정을 보면 참나무를 숯가마에 세워서 가득 쌓은 다음 굴뚝을 만들고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3~4일 정도 태우고, 굴뚝과 아궁이를 막고 4~5일 정도 식혀서 숯을 만듭니다. 숯은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겐 아주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으므로, 모든 작업은 마을공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숯은 옛날에는 귀한 연료였으며, 응급약으로 아주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숯은 장을 담그는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요즘에는 냄새와 습기제거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지요.

▣ 그럼 숯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네. 진짜나무, 고마운 나무라는 뜻에서 이름 지어진 참나무로 굽는답니다. 참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까요? 여기 어디... 참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 굴참나무의 희생

▣ 이 참나무는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중 하나인 굴참나무입니다. 껍질이 두껍고 부드러워 병마개나 고급 건축자재로 인기를 끌면서 껍질을 벗겨내는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굴참나무가 맹세이골에서는 어떻게 의로운 희생을 하였는지 알아보을까요?

▣ 굴참나무를 만져 보세요. 푹신푹신하지 않나요? 여기 맹세이골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굴참나무의 껍질을 벗겨 외벽에 붙여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맹세이골의 주요 생계수단이었던 숯을 만드는 원료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굴참나무는 맹세이골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희생했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 굴참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지금도 껍질을 벗겨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굴참나무의 영양분이 이동하는 물관과 체관부분에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피는 다시 푹신푹신하게 돌아난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를 이용하는 맹세이골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 맹세이골의 화장실 구조

▣ 여러분 주위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는 옛날 맹세이골의 실제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옛날 산골 마을의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의 구멍이 뚫린 귀신의 손이 나온다는 재래식 화장실은 많이 보았을 겁니다. 맹세이골도 재래식 화장실 구조와 비슷하지만 산골마을의 지형을 잘 이용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 맹세이골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똥을 바로 모아 퇴비로 만들어 이용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똥 먹는 돼지를 기르는 화장실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래도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2층이 화장실이고 사람이 똥을 누면, 1층은 밑으로 떨어진 똥을 모아 풀과 섞어 퇴비를 만드는 퇴비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퇴비를 만들었던 퇴비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료가 없던 옛날에는 똥과 주변의 풀을 섞어 천연퇴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퇴비는 맹세이골 사람들의 식량인 고구마, 감자, 콩 같은 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옛날 맹세이골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기발하지 않나요?

### 마을의 수호신 당산나무!

▣ 여기에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입니다. 바로, 당산나무이지요. 그렇다면 당산나무란 무엇일까요? 당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 제사를 지내 주는 나무입니다. 맹세이골 윗마을의 중심부에 있는 거대한 팽나무가 당산나무이며 마을 사람들의 안녕, 마을의 풍년, 질병 예방을 기원했던 나무입니다. 여기 맹세이골에서는 매년 음력 1월 1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당산나무에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를 볼 수 있는데 팽나무 외에도 느티나무, 들메나무, 소나무를 당산나무로 모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당산나무는 맹세이골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을 지켜온 나무이고, 지금도 맹세이골을 지키는 든직한 나무랍니다.

▣ 여러분이 보시기도 당산나무가 든직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당산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어 볼까요? 무슨 소원을 빌었나요? (참가자 대답) 소원을 간절히 빌었다면 당산나무가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 옛 선조들의 지혜

▣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 나무는 누리장나무입니다. 꽃은 8월~9월에 피며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나 누리장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가면 땅콩껍질 같은 누린내가 풍기는데 가까이에서 맡으면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조상님들은 '누린내기 대장'이란 뜻으로 누리장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 여러분! 직접 한번 누리장나무 냄새를 맡아 볼까요? 누린내가 나나요? (잎을 비벼 냄새를 맡도록 한다) 냄새가 어떤가요?(대답) 향긋한 냄새는 아니지만 누리장나무의 누린내가 화장실의 고약한 냄새를 없앴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고약한 화장실 냄새를 감출만 하죠?

▣ 이렇듯 옛 조상님들의 자연을 이용한 사소한 생활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리장나무 외에도 독특한 향기를 뿜어서 화장실 주변의 방향제로 사용된 다른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들인지 찾아 떠나볼까요?

▣ 앞의 해설에서 독특한 냄새로 화장실의 냄새를 가려주었던 누리장나무와 같이 여기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형제도 잎과 열매에서 독특한 냄새가 난답니다. 냄새를 한번 맡아 볼까요?(잎과 열매를 비벼 냄새 맡도록 유도)냄새가



어떤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지 않나요?(참가자 대답)네, 그렇습니다. 옛날 맹세이골 사람들은 초피나무를 이용해 생선의 비린내나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없애거나 산초나무는 구토, 구충, 진통효과인 약용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 그러면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형제의 생김새를 관찰해 볼까요? 우선 산초나무와 초피나무의 잎은 쌍둥이처럼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가지에 난 가시를 보고 구별을 한답니다. 가시가 서로 어긋나게 나면 산초나무이고 마주보고 나면 초피나무입니다. 구별 방법이 간단하지요? 다같이 구별해볼까요?

▣ 우와,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뽕나무인데요. 이곳에 왜 뽕나무가 있을까요? 산골마을 사람들은 왜 여기에 뽕나무를 심었을까요? 바로 누에 때문입니다.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로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에의 먹이인 뽕나무를 집 주변에 많이 심어 가꾸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주변에 집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 저기, 흙으로 만든 집이 보이나요? 이 가옥은 맹세이골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지붕은 조릿대로 엮었으며 벽은 흙과 돌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이 집을 자세히 보세요. 경사진 지형을 이용해 땅을 파낸 후 돌을 쌓아 올려 지은 집입니다. 이 집만 보아도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맹세이골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가옥은 방 2칸과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의 크기를 보면 아주 작는데요. 산골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김영선씨가 실제로 살았었지만 지금은 개미귀신이 주인이랍니다.

▣ 그럼 이곳에서 옛날 산골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도 한번 체험해 볼까요?

### 산골마을 주민 체험

▣ 혹시, 저게 무엇인지 아나요? 옛날에 이불에 오줌을 싸면 저걸 머리에 둘러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녔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저것은 바로 '키'라고 하는 겁니다. 키는 옛날에 곡식을 담아서 까부르면 가벼운 것은 날아가거나 키의 앞에 남고, 무거운 것은 뒤로 모여 구분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키로 곡식을 까부르는 것을 키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다 같이 키질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곡식이 있습니다. 이걸 키에 넣고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어 보세요. 처음이라 잘 안되지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상상하면서 해보도록 해요.

▣ 다음 이건 뭘까요?(참가자 대답) 네. 바로 '맷돌'이죠? 근데 위에 뭔가가 하나 빠져 있네요. 네. 손잡이가 없습니다.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는데요.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처구니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경우를 두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답니다. 맷돌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고 팥, 콩을 거

칠게 부수거나 가는데 쓰였던 생활 도구입니다. 우리도 한번 멧돌질을 해볼까요? 우와, 어때요? 곡식이 가루가 되어 나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지.....

### 황토집 앞마당의 과일나무들

▣ 이 산속에 왜 감나무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감나무는 이렇게 깊은 산중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그럼 이곳에 왜 감나무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나무만 보아도 여기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집 뒤뜰이나 안마당에 감나무 한 두 그루쯤을 심어 길러 홍시나 꽃감을 만들어 겨우내 즐겨 먹었습니다. 지리산 동쪽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꽃감 말리기에 적당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예로부터 감나무가 많았으며 누렇게 익은 생감의 껍질을 벗겨 잘 말린 꽃감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 특산품입니다.

▣ 옆에 보면 복숭아나무도 있습니다. 복숭아나무도 옛날 산골마을 사람들의 귀중한 식량이 되었답니다.

### 게임으로 다시 보는 맹세이골

▣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깊은 산골인 맹세이골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니 자연과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드나요? 지금은 도시 생활과 시멘트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흙과 나무와 풀과 함께 살아왔답니다.

▣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모여주세요. 각 3~4명씩 조를 정하세요. 가족이 오셨으니까 가족별로 조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조가 다 정해졌나요? 그럼 제가 프린트와 볼펜을 조별로 하나씩 나눠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맹세이골 입구까지는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적어오세요. 만약에 나무라면 나무의 이름과 생김새를 적어오고 어떤 장소이면 그 장소가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적어오세요. 저의 해설을 잘 들었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다 같이 내려가서 맹세이골 입구에서 만나겠습니다. 모두 끝난 조는 맹세이골 입구에 모여주세요.

▣ 여기로 모여주세요. 지금부터 각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발표하는 조에게는 특별히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조별로 발표를 해보죠. 어떤 조부터 발표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조입니다. 다른 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혹시나 내가 빠트린 부분은 없었는지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참가자 발표)

▣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조도 발표해 볼까요?

▣ 네. 모두 발표가 끝났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한 번 더 되짚어보니까 머릿속에 쑥쑥 들어오나요? 가장 잘 맞춘 조에는 선물을 주겠습니다.

## 느낌나누기, 마무리 및 인사

▣ 지금까지 여러 가지 농기구와 생활 도구들을 활용하여 산골 생활 체험을 하고 옛 선조들의 생활의 터전이었던 숲을 온몸으로 느껴 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재미있고 즐거우셨나요?

▣ 옛 선조들의 생활터전인 동시에 많은 동·식물의 보금자리인 지리산의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어울려 자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옛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담긴 즐거운 체험과 신기한 자연 이야기를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옛 선조들의 자연과 함께 했던 지혜로운 삶을 기억하며 언제나 자연을 느끼고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아름다운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